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중단 없는 학습을 위한
과감한 도전

CONTENTS

01

개요

- 04 숫자로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 06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02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 12 대응 체계
- 15 학사운영
- 18 원격교육 인프라
- 22 학교방역 시스템
- 29 코로나19 예방접종
- 31 돌봄지원
- 33 각종시험
- 36 위기상황 현장소통 체계
- 37 범정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 40 국제협력
- 43 교육회복
- 45 미래교육

01

개요



숫자로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국내 확진자 수

17,086,626명

국내 사망자 수

22,466명

치명률

0.13%

('22.4.27 기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생, 교직원 확진자 수

* 교육청 보고인원 기준

학생 2,359,337명

교직원 216,236명

('22.4.27 기준)

국외 확진자 수

509,901,339명

국외 사망자 수

6,250,677명

치명률

1.23%

('22.4.27 기준)

청소년(13~18세)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1차 접종 완료 83.2%

2차 접종 완료 80.5%

('22.4.27 기준)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대상

신속항원검사도구

무료 지원 수

1억 353만 개

('22.4.27 기준)

일일 자가진단

사이트(앱)

참여 인원 수

698.1만 명

('22.4.27 기준)

방역전담인력

배치

약 7만 명

('22.4.27 기준)

보건인력 및

정원의 보건교사 배치

1,629명

('22.4.27 기준)

교육청 긴급대응팀

운영 현황

260팀 1,364명

('22.4.27 기준)

학생·교직원 전용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현황

24개소

('22.4.27 기준)

원격수업을 위해

교사가 업로드한

콘텐츠 수

2021년

4,732.8만 개

무선망 구축

초·중·고 교실 수

38.6만실(누적)

('22.3월 기준)

원격수업 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 비율

2021년 1학기

77.6%

('21.5.6 ~ '21.5.18 조사)

등교중지 학생 대체학습

제공 학교 비율

99%

('21.5.6 ~ '21.5.18 조사)

2020 코로나19 대응 교육 인프라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295,958백만 원

초등학생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269만 명 대상 1인당 20만 원 지급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132만 명 대상 1인당 15만 원 지급

(2020년 10월, 1회 지급)

학교 방역물품 및 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

2020년 1,539억 원 (국고 456억, 특별교부금 1,083억)

2021년 966억 원 (국고 380억, 특별교부금 586억)

2022년 1,459억 원 (특별교부금)

인터넷통신비(월 19,250원)

지원 대상 학생 수

2020년 174만 명

2021년 14.1만 명

농산물 꾸러미

지원

530만 학생 가정에

총 4.5만여 톤

'스마트기기 대여제도'를 통해

기기를 대여받은 학생 수

2020년 1학기 282,982명 2학기 262,982명

2021년 1학기 256,471명 2학기 179,730명

긴급돌봄

참여 학생 수

187,300명

('20.6.22 기준)

장애학생 긴급돌봄

학부모 '만족' 응답 비율

93.3%

('20.10.26 ~ 11.2 조사)

수능시험

응시생 수

2020년 421,034명

2021년 448,138명

(재학생 및 졸업생 포함)

수능시험에 응시한

확진자 수

2020년 41명

2021년 96명

교육회복을 위한

교과보충 프로그램 지원

예산

2,200억 원

지원 학생 수

142만 명

(2021년 하반기, 중복포함)

교육부

코로나19 상황 및 일일점검 회의,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 회의 개최 횟수

330회

('20.1.29 ~ '22.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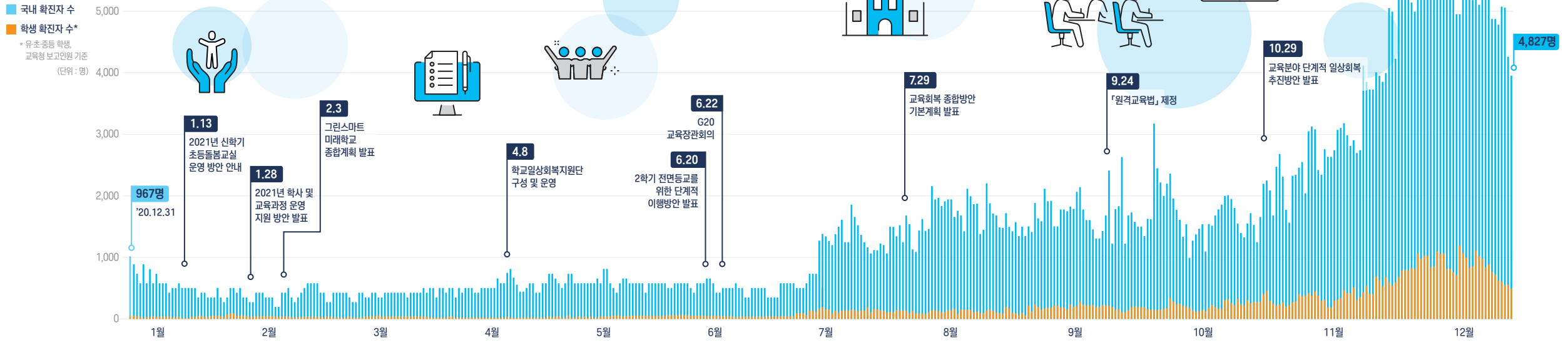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 대응 체계**
- 학사운영**
- 학교방역**
- 유학생관리**
- 돌봄지원**
- 온라인개학**
- 현장소통**
- 국제협력**
- 각종시험**
- 예산지원**
- 미래교육**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 설치(2.21) 유·초·중고 1차 개학연기(2.23)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팀 신설(3.1)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 발표(3.2)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구성 및 운영(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4.7) 코로나19 관련 학생 상담·심리 지원(4.19)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5.4)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5.7, 6.3)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 구성 및 운영(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대응 학교상황총괄과 확대 개편(7.1)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과 신설(7.1)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 발표(8.11)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마련(8.11) 수도권지역 선제적 원격수업 전환 조치(8.26~9.11) 2학기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10.11)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교육분야 관련사항 발표(11.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 발표(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생 출입국 정보 공유 체계 마련(1.31~) 코로나19 범정부 유학생지원단 운영(2.2)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마련(2.16)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배포(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입국 유학생 방역관리 강화 확대 시행(4.1) 유·초·중등 방역준비 실태점검(4.12) 대학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지침 안내(4.23) 등교수업 전환 학교방역 세부지침 발표(5.7)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2판) 안내(5.7)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일일점검 시행(5.18)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2-1판) 안내(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2-2판) 안내(7.15) 2020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관련 서울 간담회(7.16) 2020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수립(7.29) 수도권 지역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강화 관련 관계부처 회의(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력적 학사운영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위해 학교방역인력 추가 배치(10.11)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3판) 안내(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학 지연 대비 온라인 학습콘텐츠 검토(2.20) 긴급돌봄 1~3차 수요조사(2.24~3.9) 긴급돌봄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3.9~) 온라인 학습통합 지원사이트 '학교온(On)' 개통(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만 교사 커뮤니티 임명(4.6) 중3, 고3 온라인 개학(4.9) 초4~6, 중1~2, 고1~2 온라인 개학(4.16) 초1~3 온라인 개학(4.20)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사업 시행(4.29)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개통(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등교수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6.29)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7.31)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방안 마련 및 현장 점검(8.2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 발표(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개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11.9)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초·중·고·고교) 개통 안내(12.4) 겨울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 협조 요청(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대응 대학처장협의회(1.29) 코로나19 대응 1차 대학 현장지원(2.26~3.5) 한중 교육부 각국 유학생 보호 협의(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EBS 학습관리 시스템 현장점검(4월) 한·중 코로나19 대응 및 교육협력 강화 논의(5.11) 학교 방역 준비상황 점검(5.25) G20 특별 교육장관 화상회의(6.27) 교육부-질병관리본부 정례회의(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질병관리본부 정례회의(7.5) 수도권 학부모 원격 간담회(8.31) G20 교육장관 회의(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교 등교수업 현장방문 및 학부모·교직원 간담회(10.19) 실시간 온·오프라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10.20) 아르헨티나 교육부장관 원격화상 개최(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각종시험 연기 결정 코로나19 예방대책 특별교부금 긴급지원 ※ 1차: 2.6, 2차: 3.10, 3차: 3.26 코로나19 대응 위한 2020년 추가 경정예산 확정(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학년도 수능 2주 연기 및 대입 일정 변경안 확정(4.1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4.23)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책 추진(4.24) 코로나19 예방대책 제4차 특별교부금 긴급지원(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예방대책 제5차 특별교부금 긴급지원(7.7)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85%로 추가 인하(7.8)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7.31)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관리 방향 발표(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능 특별방역기간 운영(11.19~12.3, 2주) 대학수학능력시험(12.3) 코로나19 예방대책 제6차 특별교부금 긴급지원(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원격교육 정책자문단 회의(4.23, 5.1, 5.8, 6.19) 포스트코로나 교육대 전환 대화(6.17~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별 포스트 코로나 교육대 전환을 위한 대화(7.15~8.11)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발표(9.9)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 훈련 혁신방안 발표(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교육전환 10대 정책과제(시안) 발표(10.5) 미래교육10대 정책 학부모의의 대화(11.18)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 발표(11.20) 미래교육10대 정책 학생과의 대화(12.15) 및 교원과의 대화(1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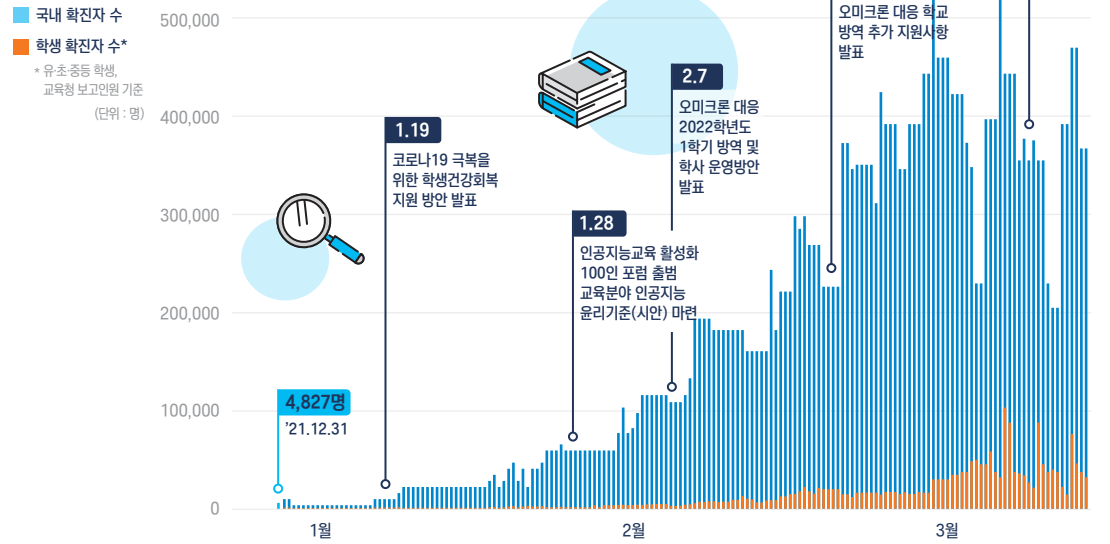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 대응 체계
- 학사운영
- 학교방역
- 예방접종
- 돌봄지원
- 교육인프라
- 현장소통
- 국제협력
- 각종시험
- 예산지원
- 미래교육
- 교육회복

2021년 1분기	2021년 2분기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발표(1.28) 1학기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1.28) 2021년 새 학기 대비 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 발표(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일상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4.8)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6.20)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7.9) 2학기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7.19, 8.9)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10.29)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수정본 안내(11.2, 11.18) 중대본 방역 대응 강화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 발표(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발표(1.28)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 배포(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발표(4.21) 대학 방역 관리 전담팀(TF) 구성(4.30)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제2판 안내(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및 학원 방역 강화 조치사항 발표(7.8)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7.19 제5판, 8.9 제5·1판) 고3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 안내(7.19)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발표(7.28)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제3판 안내(8.18) 12~17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시행 안내(9.27) 2학기 개강 대비 대학특별방역기간 운영 및 현장점검(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17세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10.18) 12~15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11.1)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5·2판) 안내(11.22) 학생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교육부·질병관리청 공동) 발표(12.1)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제4판 안내(12.7) 보건조사 확대 배치 근거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12.7) 찾아가는 백신접종 추진 관련 관계부처 회의(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안내(1.13) 학교돌봄터 사업 기본계획 발표(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교육센터 18개 추가 설치 발표(4.5) 교원용 최신기종 노트북 등 25.5만 대 배치 완료(4월) 초·중고 교실 무선망 31.2만 실 구축(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발표(8.4)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발표(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레터 발간을 통한 초등돌봄교실 우수사례 발굴·공유 정부24 활용 학교돌봄터 원스톱 신청 시스템 구축(12월) 초·중고 교실 무선망 31.7만 실 구축(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질병관리청 신학기 학교방역 등 개학준비 점검(2.21) 새학기 대비 교무처장 및 학생처장 협의회(2.25) 주한호주대사 면담을 통한 교육격차 대응 등 논의(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질병청 새학기 방역 조치사항 협의(4.7) 학교방역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4.15, 5.17) 학교·학원 방역대응 관련 학부도 간담회(4.26) 2021년 1학기 대학 방역 현장점검(4~5월) 이동형 검체 채취팀 시범운영 현장방문(5.3) 주한인도대사 면담을 통한 코로나 대응 공유(5.10) 대학 방역관리 관련 교육부·지자체 협의회(5.11) G20 교육장관 회의(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ESCO 세계교육회의 장관회의(7.13) 부총리 주재 대학 긴급 방역 점검 회의(7.13) 오만 교육부에 e러닝, 원격교육 구축 성과 공유(7.29) 학교방역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7.30, 8.27) 단계적 전면등교 추진 관련 방역전문가 온라인 포럼(8.11) 교육부·교육청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지원 논의(9.24) OECD 국제세미나(9.29), APEC 포럼(9.30~10.1)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방역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10.28, 11.25) 핀란드 교육장관과 교육 일상회복, 미래교육 논의(11.26) OECD 솔라이더 교육국장 연담, 한-OECD 세미나(12.7)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 학생·학부모·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포럼(12.8) 한국의 SDG4 이행과 교육회복 국제포럼(12.9~12.10) ASEM 교육장관 회의(12.15) 학생과 함께하는 백신접종 온라인 간담회(12.22) 코로나19 관련 국립대병원장 간담회(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대응 제1차 특별교부금 지원(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대응 제2차 특별교부금 지원(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능시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8.5) 대학별 전형 방역관리 가이드라인 발표(8.5)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관리 방향 발표(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능 시험 원활화 대책 발표(10.20) 대학별 전형 방역 현장점검(11.1~11.12) 수능 특별 방역 기간 운영(11.4~11.17)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11.18) 코로나19 대응 제3차 특별교부금 지원(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계획 발표(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교육제제전환추진단 출범(6.8) 교육회복지원단 신설(6.11) K-에듀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7.29) 대학교육회복지원단 구성(8.5)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개최(9.8) 「원격교육법」 제정(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교육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0.6)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안착 방안 마련(10.12)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2022년 1분기

대응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2.7)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2.18, 2.24, 3.14) 새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구성 및 운영(2.21)
학사운영	
학교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 방안 발표(1.19)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발표(1.27)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2.10 제6판, 3.14 제6-1판, 5.1 제7판)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 발표(2.16)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제5판 안내(2.28)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 개선사항 안내(2.28) 소아(5~11세) 기초접종 및 청소년(12~17세) 3차접종 실시 안내(3.14)
예방접종	
돌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안내(1.13) 초중고 교실 38.6만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 완료(3월)
교육인프라	
현장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방역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1.11, 3.25) 교육부-질병관리청 학교 방역 관련 간담회 개최(1.26, 3.7, 3.15, 4.14)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현장 의견 수렴(2.17, 2.22, 2.23) 신속하원검사도구 준비현장 방문(2.24) 2022년 1학기 개강 대비 대학 방역 현장점검(2~3월) 학생·교직원용 유전자 증폭(PCR) 검사소 준비상황 점검(2.25, 3.16)
국제협력	
각종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대응 제1차 특별교부금 지원(1.28) 코로나19 대응 제2차~제5차 특별교부금 지원(2.3, 2.15, 2.24, 2.25) 코로나19 대응 제6차 특별교부금 지원(3.21)
예산지원	
미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100인 포럼 출범(1.27)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기준(시안) 마련(1.27) 「원격교육법 시행령」 제정(3.25)
교육회복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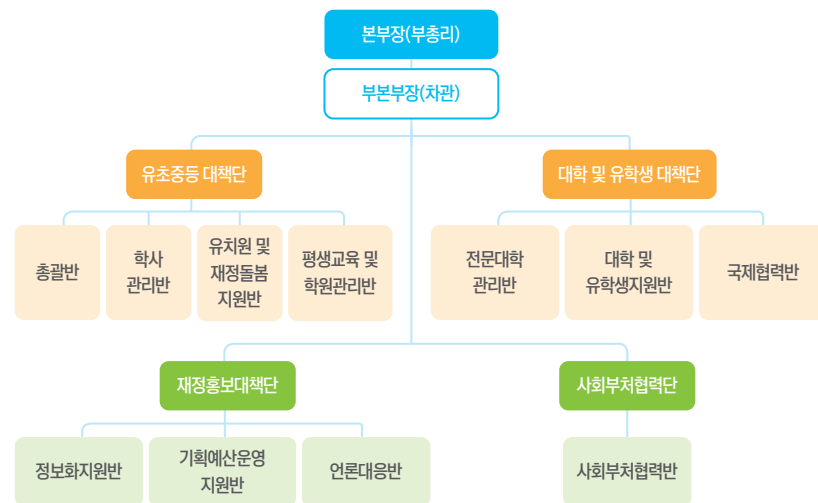
대응체계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 대응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각종 현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교육부 내부에 장차관이 총괄하는 대응 조직을 구성하였고, 관계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대학 등 교육행정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였다.

교육부 대응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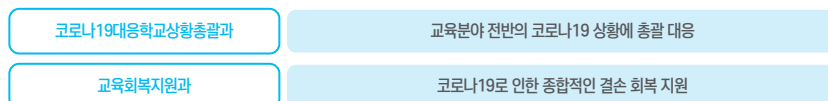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초기, 교육부는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신설하여 대응하였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대응 조직을 확대·재편하였고, 2월 말부터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32개 부서가 참여하는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다. 2020년 7월 1일, 코로나19 대학긴급대응팀을 코로나19대응 학교상황총괄과로 확대·개편하였고 코로나19대응 원격교육인프라구축과를 신설하였다.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 조직도



코로나19 상황이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운영은 점차 안정화된 반면, 학생들의 학습, 정서·사회성 등 종합적인 결손 누적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전담부서로 2021년 6월 11일 교육회복지원과를 신설하여 교육분야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총괄 대응하는 학교상황총괄과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지원을 담당하는 교육회복지원과의 2과 체제를 구축하였다.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전담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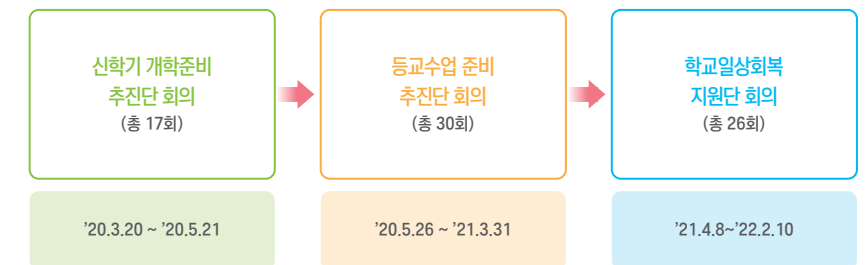


시도교육청 협력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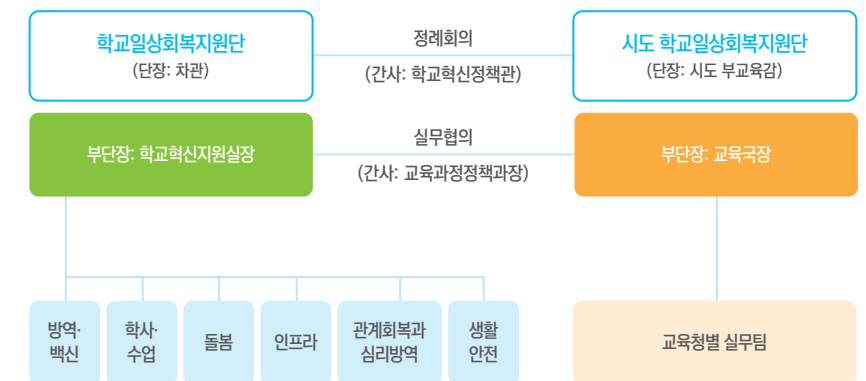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 차례의 개학 연기를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현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의체인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추진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가 참여하였다. 2020년 5월부터 순차적인 등교 개학이 결정되면서,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은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각종 논의를 진행하였다.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위한 회의는 개학 준비를 위해 총 47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교육부는 주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시도교육청은 각 지역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정책 내용을 논의하였다.

2021년 이후부터는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학교일상 회복지원단' 체제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학교 방역 및 학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였다.

시도교육청 협력체계 운영 경과



학교일상회복지원단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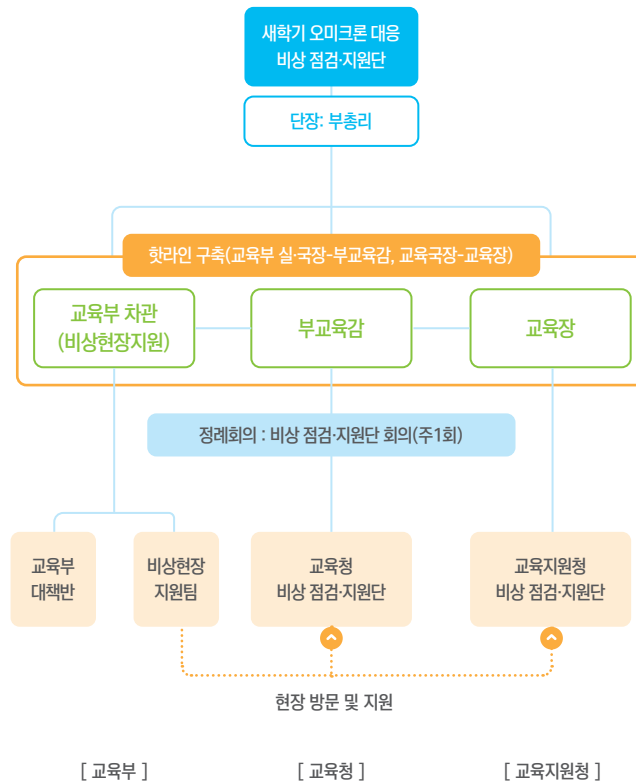


※ 교육부-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 시도교육청-지역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오미크론 대응 체계

2022년 1학기 개학을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비상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2022년 2월 21일부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가동하였다. 매주 개최되는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는 부총리 또는 차관이 주재하며,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장이 참여한다. 2022년 4월 첫째 주까지 총 7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어 안정적인 새학기 방역과 학사 운영 등을 논의하였다.

새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구성·운영



기존의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반 일일점검회의도 오미크론 비상대응체계에 맞춰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교육부 대책반 회의'로 변경되었다. 회의는 주 2~3회 개최되며 시도 및 학교현장에 대한 중앙 차원의 지원방안과 방역 등 핵심 점검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다.



학사운영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맞게 적용해나갔다. 2020년 1학기,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 후 점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자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과 연계해 학사운영 방안을 조정하며 유연하게 대응해 나갔다. 2021년 2학기부터는 국가차원의 일상회복 기조에 맞추어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20년 1학기 온라인 개학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 전 신속하게 2020학년도 학사를 조정하였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의 신학기 개학 연기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수립하였다.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체계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국 대학의 개강 연기를 권고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로 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대학 졸업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집단행사도 연기 또는 철회를 권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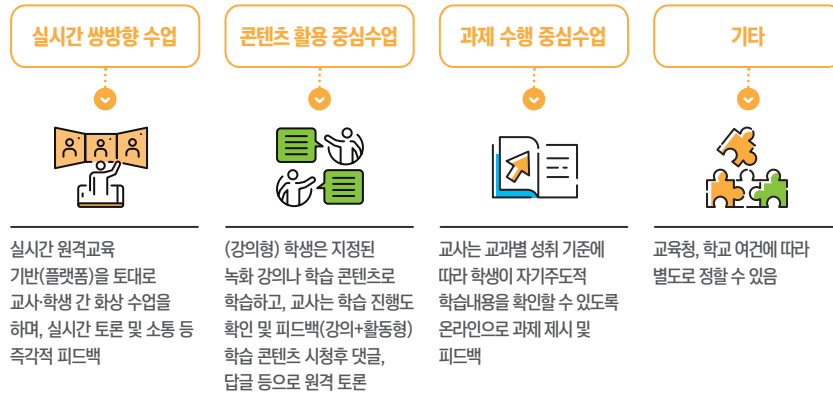
2020학년도 1학기 단계적 온라인 개학

※ 4.6. 이후 각 학년별 휴업 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수업시수)에서 감축 허용

학년	4.6~8	4.9~10	4.13~15	4.16~17	4.20~
고	3	휴업(3일)	적용기간	온라인 개학(4.9~)	
	1,2		휴업(7일)	적용기간	온라인 개학(4.16~)
중	3	휴업(3일)	적용기간	온라인 개학(4.9~)	
	1,2		휴업(7일)	적용기간	온라인 개학(4.16~)
초	4-6		휴업(7일)	적용기간	온라인 개학(4.16~)
	1-3		휴업(9일)		온라인 개학(4.20~)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에 따른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측면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하였다. 온라인 개학은 전 학년이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고3, 중3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의 차이로 인한 혼선이 없도록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하였다.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각 지역·학교별 실정과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지침과 원격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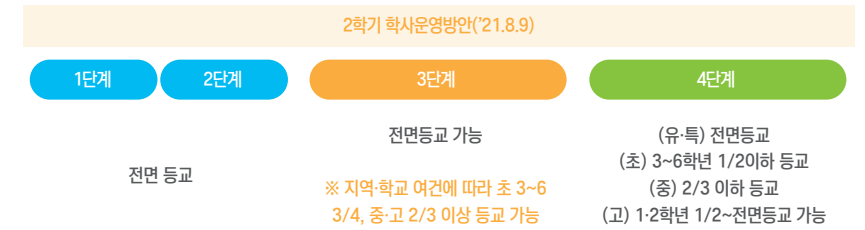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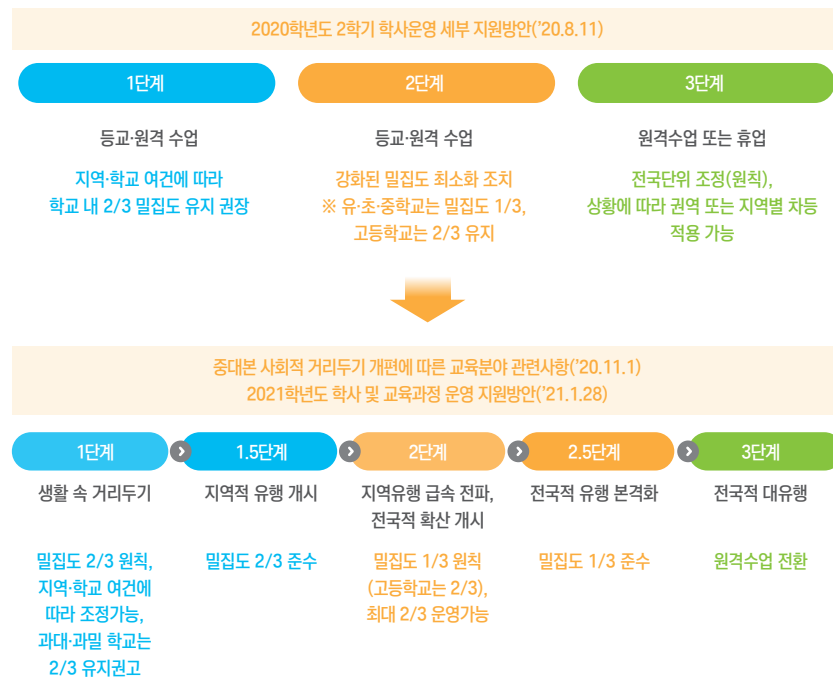


2021년 단계적 전면등교 추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복합적인 결손을 해소하고자 교육부는 철저한 방역 하에 점진적인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하였다. 2021년 6월 20일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8월 9일 「2학기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전면등교 가능 범위를 확대하였다.

2021년 10월부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되면서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상회복이 추진되었다. 교육부는 2021년 10월 29일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교육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등교수업 확대를 넘어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약되어 왔던 각종 교육활동을 정상화해나간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침을 바탕으로 2021년 11월 24일 기준 전체 학생의 91.1%가 등교수업에 참여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학사운영 기준 변화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 사회·정서적 교류 축소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2021년 6월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10월말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학의 대면수업, 학생자치활동, 취업지원활동, 현장실습 등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 비상 대응

2022년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과 방역체계 전환 등에 따라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22.2.7)을 발표하였다. 기존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학교 내 확진자 수가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다는 예측에 따라, 전국단위 조정방식보다는 지역·학교 단위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이에 지역별, 학교별 학생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가 다수 확진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수업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하고 수업 대체방안 등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였다.

대학에서도 2022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자가검사키트 공적 조달물량 구매, 3차 예방접종 독려 등 오미크론 특성에 맞춘 방역체계를 준비하였다.



원격교육 인프라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개학이 결정되었다. 전면 원격수업에 대비해 교육부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확보하였다. 또한, 교원들이 원격수업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양질의 수업 사례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교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였다.

원격수업 기반 마련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개학이 결정되기 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약 534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학습 관리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2020년 1학기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 시스템 증설 및 점검을 거쳐 일일 각 300만 명 동시 이용 가능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원격수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민간 합동 원격수업 점검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관별 실시간 현장 기술 상황실을 운영하였다.

e학습터



온라인클래스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2022년 3월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전 학습공간 38.6만 실에 무선망을 구축하여 자유로운 온라인 학습 환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노후한 교원용 기기 25만 대를 최신형 노트북, 데스크톱, 태블릿 등으로 교체하였다. 학생들에게는 2021년 2학기 기준으로 스마트기기 18만 대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원격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0년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투자하였다.

| 2020 코로나19 교육부 소관 추경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초중등학교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 확보

원격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교사들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확보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e학습터를 통해서도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방송중·고 콘텐츠 28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발된 초등 한국어교육 콘텐츠 36편 등을 포함해 총 6천 2백여 편의 콘텐츠가 제공되었다. 온라인클래스에는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약 634편, 한국문화예술교육 콘텐츠 22편, 중앙교육연수원 강좌 9종 등 총 4천 2백여 편이 탑재되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에서 장애학생이나 다문화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확보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장애학생을 위해 원격수업용 점자 교재 등을 지원하였다.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원격수업 지원 콘텐츠, 직업계고 전문교과 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콘텐츠 등도 다각적으로 확보되었다.

| 원격수업 콘텐츠 제공 현황

학교급	교과	채널
초등	1~2	국어, 수학, 창의체험 등
	3~6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창의체험 등
	전학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e학습터+EBS 온라인클래스(EBS 초등, EBSe, EBSMath)
	교과군별 공통과목 및 선택과목 28종	방송통신중학교 교과 콘텐츠(e학습터+EBS 온라인클래스)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 소프트웨어	EBSi 고교강의(내신 및 수능 강좌), EBS온라인클래스(EBSe, EBSMath, EBSi숲)
	교과군별 공통과목 및 선택과목 41종	방송통신고등학교 교과 콘텐츠(EBS 온라인클래스)

교사 상호간 협력 환경 조성

2020년 원격수업 도입 초기, '1만 커뮤니티', '학교온', '지식샘터' 등을 통해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실시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였다. 교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국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교사들과 소통하며 원격수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원격수업 역량을 개발하였다.

| 교사 원격수업 지원 커뮤니티

1만 커뮤니티	학교온	교사온	지식샘터
학교현장의 원격교육 안착을 위해 17개 시도 학교별 대표교사, 교육부,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관계기관에서 모인 공동체	교사가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하고 학습 및 생활지도 등의 가정학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통합지원 플랫폼	지원을 요청한 교사의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온라인 학습방 개설 및 온라인 학습 과정 설계와 운영 등을 돕는 원격지원 자원봉사단	원격수업에 필요한 내용을 교사가 직접 동료 교사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 온라인 지식 공유 사이트

‘지식샘터’는 2020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개통된 교원 간 쌍방향 온라인 지식 공유 서비스이다. 코로나19로 집합·대면 방식의 교원 연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교사들이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원격수업 노하우와 교육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12,841명의 교원이 참여해 1,720개 강좌를 개설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현장의 원격수업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1만 커뮤니티, 학교온, 교사온은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그간 누적된 양질의 콘텐츠들은 선별 과정을 거쳐 2021년에 출범한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인 ‘잇다(ITDA, ICT-based Teacher Development Assistance platform)’로 이관되었다.

지식샘터



잇다(ITDA)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

현장의 원격수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원 양성 단계부터 원격수업 관련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미래교육센터’ 사업이 추진되었다. 2020년 교육대학 및 국·공립 사범대학 중 10개교를 공모로 선정하여 원격수업 실습, 수업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간 등을 구축하였다. 2021년에는 미래교육센터 18개소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전국 교육대학 및 국·공립 사범대학에 총 28개의 미래교육센터 설치를 완료하였다.

미래교육센터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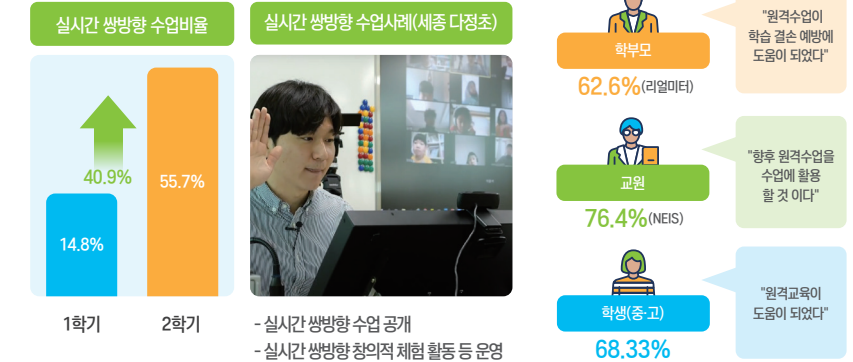


미래교육센터는 예비교원 원격교육 역량 강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학생 간 학력격차 해소 역할도 수행하였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원격 멘토링, 기초학력지도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미래교육센터 시설을 활용해 현직교원 대상 워크숍 및 교과수업 연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기존 교원들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원격교육을 통한 교육 성과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와 인프라가 확보되고, 현장의 원격수업 적응도가 높아지면서 원격수업이 점차 안정되어 갔다. 교육부는 2020년 8~9월 기간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육안전망 안착 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원격수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초·중등학교 교과수업에서 활용되는 원격수업의 형태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비중은 2020년 1학기 14.8%에 그쳤으나, 2학기에는 55.7%로 향상되었고 2021년 1학기에는 77.6%까지 확대되었다. 원격수업에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비율도 2020년 1학기에는 20.3%에 불과했지만, 2021년 1학기에는 49.1%로 향상되었다.

2020학년도 2학기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을 위한 원격수업 질 제고 성과



원격교육법 제정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활용해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9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원격교육법」에는 원격교육의 개념, 원격교육 운영의 기본 원칙, 원격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2022년 3월 법률 시행에 맞춰 「원격교육법 시행령」도 마련되어,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와 원격교육 운영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학교방역 시스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방역 모델을 마련하였다. 감염병 유행 단계에 따라 방역 지침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교육기관별 방역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하였다. 학교에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등 방역 물품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 밖에서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였다. 한편, 2021년 11월 9일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도가 낮지만 이제까지 발견된 어느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높았으므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학교가 준수해야 할 방역의 기본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세부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확진자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포함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지침을 배포하여 개학 준비를 위한 방역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20.3.24, 교육부)

개학 전 학교의 준비사항	
	개학 전 전문업체에 위탁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 소독완료
	'코로나-19 담당자' 지정,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의심 증상자 사전파악 및 등교중지 안내 ※ 교직원의 내용 숙지를 위하여 학교 단위로 교직원 대상 사전교육(비대면) 실시
	의심 증상자 격리 장소(일시적 관찰실) 준비, 등교시간 혼잡 최소화(분산) 방안 마련·안내, 위생·방역물품(비누·손소독제·체온계·휴지 등) 비치 등 ※ 발열검사를 위한 학교 출입문 조정 등 등선 확정안내, 열화상카메라 조기 설치 등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필요량 비축·지원을 통하여 확산 차단
개학 이후 학교의 주요 조치사항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 상태 확인 후 의심증상 시 등교중지 및 학교연락, 등교 시 수업 중 발열 검사 후 유증상자 귀가 ※ 1주일 전부터 학생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학교에 연락하는 일일점검 시스템 가동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 교육,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및 보호 조치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해외 여행력 및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 시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
	다수 공간에 개인위생 수칙 게시, 교내 방송을 통한 수시 안내,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착용 실천 지도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14일간 등교 중지 (학교시설은 소독 후 이용 가능)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2022년 1월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였다. 방역당국은 방역·의료체계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고 역학조사 방식을 개편하였다. 교육부는 오미크론의 특성과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 기초를 반영하여 2022년 2월 7일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지역·학교 중심 신속대응 체계로 전환하였다. 방역체계를 전면 정비하면서 질병관리청,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전문가, 현장 학생·학부모·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하였다.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체계 주요 변경내용

기존	변경
방역당국 역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발생시 학교별 자체조사로 접촉자 검사 및 관리 ·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 실시 · 기숙사생, 체육특기생 신속항원검사 주기적 실시 ·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 도입(찾아가는 검체팀 활용)

교육부는 학교 방역체계 안착과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2월 16일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을 발표하였다.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 감염 우려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운영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긴급대응팀을 구성하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다.

학교 방역인력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학교의 교원들이 원격수업 준비 등 학사운영뿐만 아니라 학생 방역관리, 학교 소독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교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의 수요를 조사하였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방역인력을 채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 7월 19일 학교 방역인력 채용·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하였다.

2022년 1학기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학교 방역인력 지원 규모를 7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비도심·산간지역 등은 대학·전문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근로를 희망하는 대학생과 인력지원이 필요한 유·초·중등학교를 매칭하여 지원하였다. 효율적인 학교 방역활동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보건계열 학생들 중심으로 지원하였고, 매칭된 대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사전교육으로 주요 활동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학교 방역인력 배치 현황

2020년 2학기	2021년 1학기	2021년 2학기	2022년 1학기
총 49,134명	총 49,853명	총 59,614명	7만 명 이상*

* 2022년 1학기 (전문)대학 매칭인원 : (1차) 259명, (2차) 90명

학교 방역인력 활동 모습



대학 방역

2020년 2월, 집합수업 지양 및 원격수업 실시 등을 권고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하였다. 대학 인근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대학-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였으며,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모니터링을 지속하였다. 또한 대학 내 집단활동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관리와 대학 시설물 외부인 출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대학 학사 및 방역관리 TF를 통해 주기적으로 대학 현장과 소통하며 대학 학사 및 방역 지원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으며, 대학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방역관리를 지원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희망근로 일자리사업’을 통해 대학 방역인력을 지원하였으며, 대학에 백신공결제 도입을 권고하여 대학생 백신접종률을 제고하였다.

2021년 9월 한 달간 ‘대학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여 교육부-대학-지자체 합동으로 대학 및 인근 다중이용시설 4,960개소를 점검함으로써 대학 내 밀집도 상승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에는 2022년 4월까지 90만 개 이상의 자가진단키트를 공공물량으로 확보하여 대학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학원 방역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학원, 교습소 대상 코로나19 예방 관리 강화가 이루어졌다.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학원은 휴원을 권고하면서 자체적인 방역활동 강화를 요청하고 추적·관리하였다.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은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학원 운영형태, 학습자 이용패턴, 학원 유형별 특성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개발·적용하였다.

학원·교습소·독서실 방역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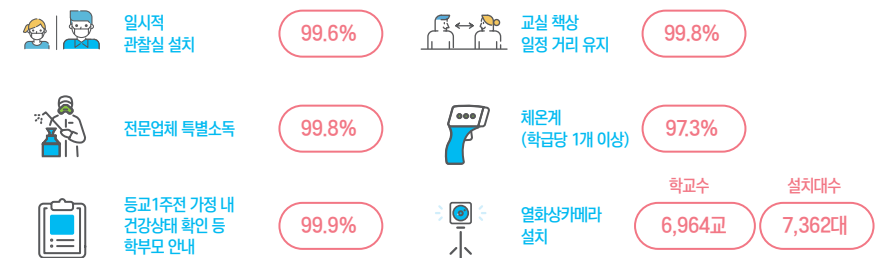
구분	의무 방역수칙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착용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관악가·노래·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주·노래·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환기)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댄스·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 (환기)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기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소 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입소자 외출 및 휴간 이동 자제 안내 방문자 시설 출입 자제 안내

방역 물품 확보 및 구입 지원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학원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의 위험이 커지면서 학원 방역을 위한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2021년 4월 학원 종사자에 대한 PCR 선제검사를 시행하였고, 2021년 7월부터는 학원 종사자 예방접종이 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원 방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학원 현장의 수용성과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학원단체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는 등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민간 주도의 자율 방역을 정착시켜 나갔다.

교육부는 신속하게 학교 방역 비축 물품 및 추가 필요 물품 현황 등을 파악하였고 예산집행을 통해 방역 물품을 확보하였다. 교육기관에 필요한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긴급돌봄, 유학생, 신학기 유치원·초·중고 학생 등 우선순위에 따라 확보하였다. 또한 등교 시 체온을 측정할 때, 학생들이 몰려 밀집 접촉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열화상카메라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다.

등교수업 준비를 위한 방역 준비 상황('20.4.22 기준)



2020년 2학기 방역물품 지원 현황

구분	마스크	손소독제	알코올티슈	손세정제	계
하반기 지원예산 (계획량 대비 지원수준)	13,644백만원 (100%)	1,051백만원 (25%)	12,480백만원 (25%)	1,078백만원 (25%)	28,253백만원
2학기 방역물품 비축 모습 (상반기 비축+ 하반기 지원)	37,569,568 (1인당 6.1개)	1,782,042 (교실당 6.4개)	4,180,216 (교실당 15.1개)	742,913 (교실당 2.6개)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다양한 방역 조치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수요를 적시에 파악하여 교부하였다. 시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외에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시도교육청 자체 사업조정을 통해 마련된 자원 등을 확보하여 방역에 활용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구분	회수/규모	목적
2020년	6차례 교부 총 1,083억 원	- 마스크·체온계·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방역활동 지원 등
2021년	3차례 교부 총 586억 원	- 학교방역인력 채용, 선제적 PCR 검사 비용 지원 등
2022년 1분기	6차례 교부 1,459억 원	- 학생 백신 이상 증상 의료비 지원, 학생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심리방역 강화

자가격리자·확진자는 물론 일반 학생이나 교직원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교육부는 ‘심리방역’을 추진하였다. 정신과 전문의 120여 명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 24시간 모바일 상담 등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추진하였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등 실제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심리 방역체계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불안이 증가하고 대면활동이 위축되면서 우울감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생들의 심리·정서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대학에 설치된 학생상담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진단검사,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전문 상담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대학생의 심리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였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방역당국은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 완화 조치를 결정하였다. 방역당국의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하여 교육부는 2022년 4월 20일 「오미크론 이후(포스트 오미크론)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방안에는 학교의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 전환을 위해 준비단계-이행단계-안착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인 교육활동 정상화를 실시하고, 동시에 본격적인 교육회복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유행 시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역체계는 지속한다는 방침이 포함되었다.

포스트 오미크론 일상회복 방안 주요내용('22.4.20)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5.1.부터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교육청 자율 실시,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 위주 접촉자 관리(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권장),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제품 착용 권고, 기타 방역수칙은 현행 유지·일부 자율 시행
	학사	5.1.부터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실시하여 교과 및 비교과 교육활동 전면 재개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대학	방역	수업과 비교과프로그램, 학생 간 교류·행사 등에서 대면활동을 확대하고 학생 역량강화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다각적 대학 교육회복 추진
	학사	강의실 거리두기 기준 해제, 학내 행사를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면 교육활동 확대 지원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제검사 운영

교육부는 학교 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예방하고, 2022년 새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수급 TF’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22년 2월 4주부터 4월 말까지 약 692만 명에 이르는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지원대상 교직원에는 방과후강사와 돌봄 종사자, 학교방역인력, 급식종사자, 학교지킴이 등 학교 종사자가 모두 포함되었다.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무료로 제공하여 선제검사를 추진하였다. 선제검사는 유·초·중·고 학생 매주 2회, 교직원 매주 1회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실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3회의 신속항원검사(자체조사)를 권고하였다.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자율방역의 취지에 맞게 의무가 아닌 권고 형태로 운영하였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다.

3월 학생·교직원 신속항원검사(선제검사) 시행 일정 예시자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월1주] 학생 주1회 [3월2주 ~ 3월5주] 학생 주2회, 교직원 주1회		1 삼일절	2 (개학일)	3	4	5
3월2주	6	7	8	9 선거일 - 저녁 검사 (학생)	- 키트 배부 3월 2주분 (학생2, 교직원1)	
3월3주	13	14	15	16 - 저녁 검사 (학생, 교직원)	- 키트 배부 3월 3주분 (학생2, 교직원1)	
3월4주	20	21	22	23 - 저녁 검사 (학생, 교직원)	- 키트 배부 3월 4주분 (학생2, 교직원1)	
3월5주	27	28	29	30 - 저녁 검사 (학생, 교직원)	- 키트 배부 3월 5주분 (학생2, 교직원1)	

※ 검사일정은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2022년 3월 4주부터는 학생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확진 시 대부분이 유증상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학 이후 누적된 가정 및 학교 교직원들의 학교 방역에 대한 피로도를 완화하고자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유·초·중·고 학생들의 선제검사를 주 1회 원칙으로 변경하되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자체조사를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접촉자 검사 횟수도 기존의 7일간 3회에서 5일간 2회 검사로 변경하였다. (단,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경우 5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선제검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배부 시, 덕용포장(25개입)된 제품을 낱개로 소분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낱개포장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 아울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배부 및 소분에 대한 교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전담 방역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적십자사 등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지원받아 소분 업무 등에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 아래서 시도교육청-학교-지역사회가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학교현장에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가 신속하게 배부될 수 있었다.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배부 및 덕용포장(25개입) 소분 현장

경상북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또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사용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사용법과 방역수칙 등을 담은 교육용 동영상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수어 통역이 포함된 안내 동영상도 함께 배포하였다.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사용방법 안내자료



2022년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실시된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선제검사 결과를 질병관리청에서 확진자 정보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4월 17일 기준), 2022년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선제검사를 통해 약 90만 명의 학생·교직원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등교중지함으로써 학교 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예방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 시 종종 진행 위험, 의료 및 방역체계 유지 필요성, 코로나19 전파 특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분야 종사자에 대한 접종은 2021년 2분기 특수교육·보육 종사자와 보건교사를 시작으로, 3분기 고등학교 3학년, 교육·보육종사자 및 기타 대입 수험생, 4분기 12~17세 청소년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2022년 3월에는 5~11세 소아 대상 예방접종이 시행되었다.

교직원·수험생 우선접종

교육분야에서는 특수교육·보육 종사자와 보건교사가 우선적인 예방접종 대상으로 결정되어 2021년 4월부터 접종을 시작하였다. 장애학생은 대면수업이 적합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고, 보건교사는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와 밀접 접촉하므로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이었다. 2021년 7~8월에는 고등학교 3학년 및 고교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교 교직원 및 돌봄인력, 기타 대입 수험생에게 백신접종이 시행되었다.

교직원의 접종시간을 보장하고자 교육부는 예방접종을 받는 교직원이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접종 다음날 발열이나 통증 등 이상반응이 있으면 진단서 없이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처리 사항을 안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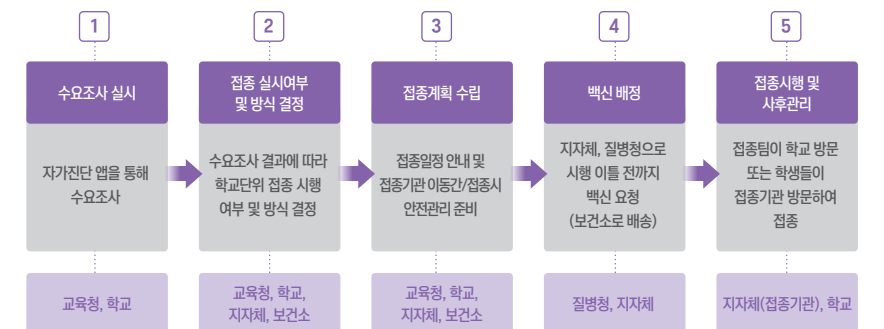
12~17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고3 및 교직원 백신접종에 이어 교육부는 12~17세 백신접종 지원방안을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였으며, 2021년 9월 27일 질병관리청을 통해 12~17세 소아·청소년 약 277만명에 대한 백신접종 계획이 발표되었다.

독감 예방접종 시기, 중간·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연령별로 백신접종 시행시기가 구분되었다. 16~17세는 10월 18일부터, 12~15세는 1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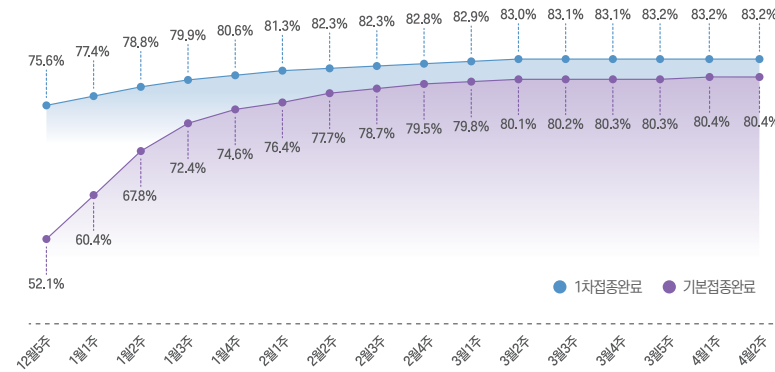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소아·청소년이 원활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일로부터 2일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학생들과 교직원의 접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를 통해 접종 대상자의 명단을 파악하고 접종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보건소는 확보된 명단에 따라 물량·일정 등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개인과 학교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였다.

찾아가는 학교단위 예방접종 추진



2022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3월 14일부터는 12~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시행하였다.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학생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13~18세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21.12.29~'22.4.19)



5~11세 소아 예방접종

2022년 오미크론 상황에서는 그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5~11세 소아 확진자 수도 빠른 속도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2022년 3월 14일 5~11세 소아 약 30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소아 예방접종은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소아용으로 제조된 화이자 백신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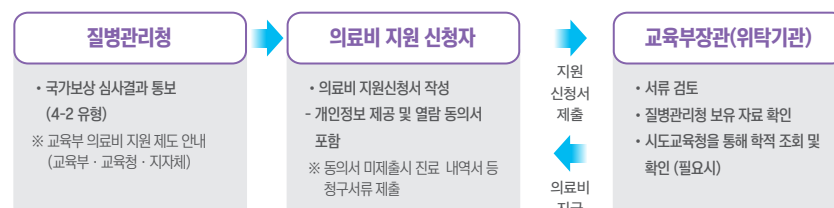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지원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도 누적되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국가배상제도에 더해,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교육부가 2022년 1월 18일 발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에 따르면, 접종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에게 접종 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국가 보상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보완적 의료비를 5백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1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개요

지원 기간	2022년 2월 ~ 2023년 5월
지원 대상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 ※ 명확히 인과성이 없어 보상에서 제외된 신청건은 지원대상에 미포함
지원 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 원 한도 내 의료비 지원 ※ 단, 교육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

1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절차



[돌봄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등교개학 연기로 돌봄 수요가 발생하면서 긴급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긴급돌봄은 행·재정적인 지원과 온라인교육 등 교육지원이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토대로 긴급돌봄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하였다.

현장밀착형 긴급돌봄 대응과 지원

2020년 초 등교 개학 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긴급돌봄이 추진되었다. 긴급돌봄은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최우선으로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에서 제공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학급당 최소 인원을 구성하는 등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해 운영하였다. 모든 교직원이 긴급돌봄 비상 대응체계에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긴급돌봄을 실시하였고, 중식 제공, 돌봄 시간 연장 등 학부모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1 정부의 긴급돌봄 지원 현황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 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 '20.2.28)

"긴급돌봄 3차 수요 조사 결과"
(교육부 보도자료, '20.3.12)

"유·초·중·고·특수학교 개학 2주간 추가 연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3.17)

"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교육부 보도자료, '20.3.24)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 돌봄 운영 계획"안내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20.5.24)

"5월27일 1단계 등교수업 개시에 앞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및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
(교육부 보도자료, '20.5.24)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중·고 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
(교육부 보도자료, '20.8.27)

개학연기 후속조치 일환으로 긴급돌봄 제공
- 기간: 3.2~6(1주일간)
- 대상: 초등학생 48,656명(4,150개교)(1.8%)
유아 71,353명(5,612개원)(11.6%)
- 운영시간: 9시~17시(지역여건 및 학부모 수요 고려)
- 학습구성: 10명 내외 권장
- 담당인력: 모든 교직원이 긴급돌봄 비상대응체계 구성·협력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안전한 긴급돌봄 제공
- 기간: 3.9~20(10일간)
- 대상: 초등학생 60,490명(4,634개교)(2.2%)
유아 87,701명(6,516개원)(13.4%)
- 운영시간: 9시~19시(지역 여건 및 수요 등 고려)
-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마련 배포(3.6)
- 긴급 돌봄지원센터(소통창구)설치 운영(3.11~)

긴급돌봄 등 행·재정 지원
- 긴급돌봄 리플렛 제작·배포
- 학교온 누리집에 긴급돌봄 탭 신설 및 콘텐츠 공유·활용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안내] 지침 마련·배포
- 개학 전 학교 준비사항: 소독 강화, 관리체계, 위생환경, 마스크 비축 등
- 개학이후 학교의 주요 조치사항: 발열 검사, 등교중지, 교육 및 실천지도, 위생환경, 소독강화, 의심환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 방안 안내
- 원격 수업 지원 및 돌봄 운영
- 긴급돌봄 인력운영: 방과후학교 강사, 원격학습도우미, 돌봄전담사, 보조인력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내에서 학습과 방역 조화
원격 등교수업 병행 대비 돌봄 공백 최소화

수도권 지역은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돌봄교실 내 밀집도 고려
최소 인원으로 분산 배치 (실당 10명 내외 운영)
현장인력 및 학부모 요구사항 반영 위해 '돌봄 지원센터' 설치 운영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학교급식(중식) 지속 제공
돌봄예산 상시 점검 및 대응

학사운영과 연계한 안정적 돌봄 운영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사일정이 탄력적으로 조정되면서 학사운영과 연계해 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20년 개학 연기로 인한 휴업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가족돌봄휴가제, 유치원 유아학비 등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였다. 현장에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긴급돌봄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2020년 4월 온라인개학 이후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이 병행되면서 돌봄교실 운영이 안정화되어 2021년 4월에는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약 28.3만 명의 학생이 초등돌봄에 참여하였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여건 속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고용노동부(가족돌봄휴가) 등 돌봄·자녀양육 관계부처와 협력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시 협력을 통해 긴급돌봄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긴급돌봄 운영 사항



구분	긴급돌봄(개학 연기 시)	긴급돌봄(온라인 개학 시)	등교수업 후 돌봄
적용시기	개학연기(휴업)로 인한 돌봄운영 (3.2~4.15)	초등(온라인 개학 시)돌봄운영 (4.16~5.26)	등교 개학 시 돌봄운영 (5.27~현재)
대상	유치원 유아, 1~6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	유치원 유아, 1~6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 ※ 저학년 맞벌이 우선	입급 대상 학생 ※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7시	오전 9시 ~ 오후 7시	오전 9시 ~ 오후 7시 ※ 유치원은 시도별 방과후 과정 정상 운영
학급규모	급당 10명 내외	급당 10명 내외	밀집도 고려하여 운영
중식	도시락 지참 및 중식 제공	중식제공(도시락 매식 등)	학교급식 제공
프로그램 및 수업	EBS, 학교온 등 온라인 콘텐츠활용	원격수업, EBS, 학교온 등 온라인 콘텐츠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인력활용	모든 교직원 참여	원격수업 지원은 원격학습도우미 활용 (방과후학교 강사 등), 돌봄은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담당	원격학습도우미 활용 (원격수업 지원, 방역활동 등), 돌봄은 전담인력이 담당, 필요시 보조인력활용
코로나19 안전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준용 매뉴얼	긴급돌봄 운영 관리지침	긴급돌봄 운영 관리지침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및 긴급돌봄 운영 관리지침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학생 건강증진, 가정 내 식사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지역별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전국 초중고생 대상 가정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시행 지침을 수립하였다. 이에 공급 예정 농산물의 품질 및 위생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지역 상황에 따라서 실제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 또는 개별 품목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 등을 지원하였다.

각종 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이 많은 응시자가 참여하는 시험들은 시험을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시험 응시 기회가 보장될 수 있어야 했다. 정부는 시험방역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각종 시험의 시행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동참을 독려하면서,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의 응시 기회를 보장하였다.

각종 시험별 상황에 맞는 신속한 조치 실시

코로나19 상황 초기에는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국내외의 많은 응시자가 대규모로 응시하는 각종 시험들이 상황에 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기도 하였다. 시험을 연기한 경우는 응시 인원 최소화, 분산 등 조치를 취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시 일정을 추가 연기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자 정부는 각종 시험들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다. 시험 방역관리 원칙을 확립하고 시험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성, 감염예방 교육·홍보, 시험 단계별 대응 조치사항 마련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험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시험에서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 거리 유지와 혼잡도 최소화,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동일하게 적용하였지만,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응시 가능 여부나 시험장 당 응시 인원 수, 칸막이 설치 등은 시험별 특수성, 감염병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였다.

응시자 유형별 시험장 관리 사례(한국사능력시험)

응시생 유형		시험장(시험실)
일반	무증상	- 일반 응시생
	유증상	- 시험당일 발열 등 유증상인 응시생
자가격리자		- 격리통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응시생
확진자		- 코로나19로 진단받고(확진자) 입원(치료) 중인 응시생 - 재택치료(자택치료) 중인 응시생
		시험전담 병원/ 생활치료센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방향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0년 기준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을 합쳐 421,034명이 응시한 최대 규모의 시험이다. 교육부는 6월부터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감염병 전문가 등과 수능 방역 TF를 운영하며 안전한 수능시험 실시를 위한 관리 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관리체계 구축'과 '방역관리범위 내에서 확진자도 포함하여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최대한 지원'이라는 기본원칙을 토대로 수능 및 대학별 전형 집합 평가에서 감염 차단 방안, 수험생 응시 기회 지원, 수능 시험실 배치 인원 하향 조정,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운영, 대학별 전형 운영 관련 자체 대면 요소 진단 및 방역관리대책 수립 권고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2021년 2022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2020년의 방역관리 노하우를 토대로 방역당국의 지침에 맞춘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수립하여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험생의 진학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방역관리

2020년 교육부는 안전한 수능 시행을 위해 첫째, ‘일반수험생’, ‘격리수험생’, ‘확진수험생’으로 수험생 유형을 구분하고, 수험생 유형별로 시험장을 별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수험 환경을 조성하였다. 둘째, 수험생 유형에 따른 일반 시험장(일반수험생)과 별도 시험장(격리수험생),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확진수험생) 등 총 1,383개의 시험장을 확보하여 전년 대비 198개의 시험장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시험실 또한 1만여 개를 추가 확보하여 총 3만 1,291개를 설치하였다. 셋째, 시험장 운영 및 방역관리 등을 위해 관리감독 인력 역시 전년 대비 2만 1천여 명이 증가된 총 12만 708명을 투입하였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장 및 관리 감독 인력 현황(2020.12.2기준)

구분 (학년도)	일반				격리		확진		관리/감독 인력
	시험장	일반 시험실	유증상 시험실	계	시험장	시험실	병원	병상	
2021	1,241	23,373	7,130	30,503	113	583	29	205	120,708
2020	1,185	21,000	-	21,000	-	-	-	-	98,925
증감	56	2,373	7,130	9,503	113	583	29	205	21,783

2020년 12월 3일 2021학년도 수능시험 당일 시험에 응시한 확진자 41명, 자가격리자 456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수능이 종료된 이후 시험장으로 활용된 모든 학교는 12월 6일까지 소독 등 방역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질병청과 협조하여 12월 17일까지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시험장을 통한 코로나19 추가 감염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수능과 관련한 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능시험장 현장점검



문재인 대통령 수능대비 학교 점검



시험단계별 조치사항(일반시험장 기준)

단계	주요사항
사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관리체계 구성 및 단계별 대응방안(업무분장) 수립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시험장 소독 및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 이행
당일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관리 및 유증상자 발생 시 별도시험실 배치 시험장 상황을 고려하여 휴식 시간마다 환기 실시 본인 좌석에서 점심식사, 식사 후 반드시 환기 실시 별도 시험실은 감독관 보호 및 답안지 회수 등 추가 조치
종료 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시험실과 별도 시험실 수험생 간 퇴실 동선 등 관리 시험장 활용 물품 폐기 처리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코로나19 임상증상 모니터링

2022학년도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질병관리청의 협조를 얻어 졸업생을 포함한 수험생과 교직원 72만 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백신접종을 실시하였다. 또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확진된 수험생을 위한 병상을 전년대비 253개 추가 확보하였다. 2021년 11월 18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집단감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2주간 수능 특별방역기간(11.4~11.17)을 운영하였으며, 수능 시행 일주일 전부터는 전국 고등학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전국에서 50만여 명이 응시한 수능시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확진자 96명과 자가격리자 128명에게도 응시 기회를 보장하였다.



[위기상황 현장소통 체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의 소통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응 인력, 조직, 체계 간 공유뿐 아니라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언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육 분야 주요 조치사항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 현장 방문, 간담회, 온라인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육분야 조치사항 협의 및 범정부 메시지 일관성 확보

2020년 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이후부터 교육부는 매주 2~3회 이상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하며 학교, 시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교육기관에 방역당국의 지침을 공유하고 교육분야 특성에 맞춘 방역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학사운영 방침 등 중요한 결정내용을 발표할 때마다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국민들에게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언론과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분야 주요 조치사항 대국민 소통

교육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방위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였다. 학사운영 조정, 긴급돌봄 지원, 수능시험 시행과 같은 주요 조치들이 진행될 때마다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여 국민들과 공유하였다. 특히, 2020년 개학 연기 결정 당시에는 부총리와 차관이 다양한 언론 매체에 출연하여 학사일정, 교육공무직 대책, 교육비 환불 요구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다. 이후에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은 언론에서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담당 실·국장이 백브리핑을 진행하였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교육부 홈페이지에 특별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주요 정보는 원컷 이미지, 카드뉴스, 영상 자료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하였다.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현장과의 소통 지속 노력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등교 여부 등 기본적인 학사 일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업의 진행방식과 절차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교육부는 현장 방문, 온·오프라인 간담회 등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의 주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꾸준히 마련하였다. 현장 소통 기회를 통해 방역 조치사항을 전달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더 나은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학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방역 현장점검을 시행하였으며, 대학 방역 담당자와 대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TF 회의를 통해 대학 방역과 학사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교육부-교원단체 간담회



부총리-학부모 간담회



[범정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 발생 직후, 정부는 중국 유학생 및 중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시작으로 입국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기울였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는 등 국내외에 걸쳐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대학-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입국 단계별로 유학생을 철저히 관리하였다.

해외 입국 유학생 체계적 보호 및 관리

교육부는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유학생 입국에 따른 국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입국 단계부터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였다.

유학생 출입국 관련 범부처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유학생의 출입국 정보를 해당 대학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대학이 입국 유학생을 모니터링하여 코로나19 증상 발현 등 특이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교육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국 절차에 따른 유학생 보호·관리 체계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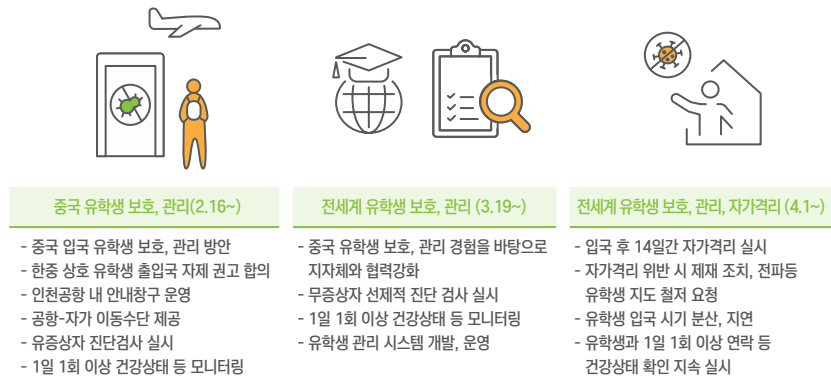
유학생 특별입국 절차



입국 유학생 관련 정책은 국내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되었다. 본격적인 감염병 유행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2020년 2월 중순에는 중국으로부터 입국 예정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입국 전 사전 관리 철저, 입국 시 검역 강화 및 입국 사실 보고, 입국 후 2주간 등교중지 등 단계별로 보호·관리방안이 마련되었다. 2020년 3월 중순부터는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입국 정보 사전 조사 및 주요사항 안내, 특별입국 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 중지(14일)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입국단계별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전 세계 국가들로 확대 적용하였다.

2020년 4월 1일 국내에서 전 세계 국가 대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유학생들에게 자가격리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안내하는 등 개별 대학에서 지도·안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2020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추진 경과



주: 국가별 '특별 입국절차 대상국가' 지정 일자: 중국(2.4), 홍콩·마카오(1.12), 일본(3.9), 이란·이탈리아(3.12), 네덜란드·독일·스페인·영국·프랑스(3.15), 전 유럽(3.16), 전 세계 국가(3.19)

이후 교육부는 방역 당국의 해외 입국자 관련 방역 지침 변화를 반영하여 매 학기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수립하였다. 2022년 1학기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변화된 방역 상황에 따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지침이 변경되면서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에서 10일, 7일 등으로 단축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높은 국가들조차 코로나19 발생 초기 유학생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입국 관리를 전제로 유학생 입국을 허용하는 방침을 택했다. 그에 따라 입국 유학생을 통한 감염병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국내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의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100,215명에서 2020년 113,003명, 2021년 120,018명으로 2년 연속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교육부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구성된 유학생 지원 체제는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설정하고 관련 대책들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입국 시기 관리 체계



개별 대학과 지자체는 범정부 방역대책에 따라 협력을 강화하여 각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보호와 관리 조치를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대학-지자체 협력 사례로,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가 의무화되면서 대학 기숙사만으로는 입국 유학생 자가격리 시설을 충당하기 어렵게 되자 지역 내 유흥 호텔을 자가격리 시설로 확보하기도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협업사항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총괄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수본, 유학생 관리 지침 및 대응 관련 제공 · 중국 및 외국 입국 유학생 의심 증상자 신고 관리 · 모바일 자가진단앱 입력 정보 제공 · 연락불가 중국 입국 유학생 소재 파악 요청 협조 · 해외 유학생 입국 관련 부처별 대응상황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학 이후 학교 감염예방 관리강화 지침검토 · 중국 외 국가 입국 유학생 현황 정보제공 ·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무단이탈자 3단계 중첩 관리 지원(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철저) · 유학생 정보시스템 필요 정보제공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입국 유학생 비자(D-2, D-4) 소지자 정보 전달, 출·입국 현황정보 제공 · 유학생 정보시스템 필요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정보 미확인 모니터링 지원 · 해외 입국 유학생 검역관리 강화 관련 사항 협의 · 외국인 유학생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 상황정보 제공 · 유학생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지원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교육부 제공 · 지자체 대응 현황 점검 및 건의사항 답변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정보 미확인 모니터링 지원 · 행안부 코로나19 자가격리 TF와 자가격리 유학생 관리팀(안전보호팀) 정보 공유 방안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격리자 안전진단앱 정보(유학생 개인정보) 제공 요청 · 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무단이탈자 3단계 중첩 관리 지원(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철저)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 수송 계획 발표 · 해외 입국 유학생 증가에 따른 대책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입국자 동선 제한 및 일반시민 접촉 최소화 안내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소재 한국 학교 교직원 및 학생 현황 제출 요청 · 중국 유학(예정) 중인 한국 유학생 휴학 요건 완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체류 취학아동 및 학생의 현지 소재 파악 협조 및 학사관리 지원 등 소통 확대
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공적 물량 배정·공급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제공 협조



국제협력

코로나19 상황 초기에는 유학생 관리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로 다루어졌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면서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에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교육부는 국제기구와 재외 한국학교-한국교육원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수시로 해외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정책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국내 학교방역 정책 수립에 활용하였다.

양자 협력을 통한 선제적 유학생 관리 및 코로나19 대응

2020년 2월 28일 교육부는 중국 교육부와 원격회담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최우선 보호’, ‘양국 유학생 보호를 위한 상호 간 출입국 자제 권고’, ‘학생들의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 3가지 사항을 골자로 하는 「한·중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2월 28일 18시 이후 즉시 적용)에 합의하였다.

또한, 2020년 아랍에미리트 교육부장관 원격회담(4.21),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면담(4.27), 주한 중국대사 면담(5.11), 아르헨티나 교육부장관 원격회담(11.17)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수업 경험, 온라인 개학 조치 및 준비현황, 등교 개학을 위한 준비상황 및 전략 등을 공유하고 향후 교육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양자협력 일지(2020년)

일정	성과	비고
2.28	교육부-중국 교육부 원격회담 ※ 한중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 등 합의	원격회담
4.21	아랍에미리트(UAE) 교육부장관 원격회담 ※ 후속조치로 한-UAE 교사 화상회의(7.29) 실시	원격회담 주한 UAE 대사 참석
4.27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전화면담	전화면담
5.11	주한 중국대사 면담	대면회의
11.17	아르헨티나 교육부장관 원격회담	원격회담 주아르헨티나 대사 참석

UAE 교육부장관 화상면담

'20.4.21

“짧은 기간에 원격수업을 정상화한 한국의 상황을 높게 평가하며,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요인이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교사 및 학부모님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높은 정보기기 활용 역량과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아르헨티나 교육부장관 화상면담

'20.11.17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병행수업 등 등교수업을 정상화한 한국 교육 현장의 대응을 높게 평가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등교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의 사례가 아르헨티나 교육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교육위기 공동대응 및 글로벌 연대 동참

2020년 5월 6일 개최된 OECD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에서 우리나라 교육부는 ‘한국의 온라인 개학 현황 및 등교수업 준비’ 등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6월에 개최된 OECD 교육정책실행 프로젝트 원격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 활용, 자발적 교사 커뮤니티 조직 등을 소개하였다. 2020년 10월 26일 OECD 교육정책개혁대화 온라인 회의에서는 ‘한국의 교사와 학교 지도자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021년 12월에는 솔라이더 OECD 교육국장 면담, 한-OECD 세미나에서 교육분야 일상회복 추진 현황과 미래교육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코로나19 대응 웨비나’가 2020년 3월 20일부터 주기적으로 개최되었고, 유네스코를 통한 각국 간 정보 공유와 정책방안 논의도 계속되었다. 교육부는 전세계 회원국들과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강화하면서, 2021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한국의 SDG4 이행과 교육회복 국제포럼(12.9~12.10)’을 개최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교육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4) 달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회복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국제기구 등을 통한 주요 국제협력 성과

일정	성과	비고
'20.3.20~	코로나19 대응 웨비나	주기적으로 개최
'20.7.10	아태지역 온라인 국제컨퍼런스	
'20.10.22	2020 세계교육회의 특별회의 고위급회의	
'20.12.2	유네스코 코로나19 대응 교육재정 웨비나	
'21.7.13	2021 유네스코 세계교육회의 장관회의	
'21.12.9~12.10	한국의 SDG4 이행과 교육회복 국제포럼	

해외 코로나19 대응 동향 조사

교육부는 유네스코, 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재외한국학교(16개국 34개교), 재외한국 교육원(19개국 43개원)과의 상시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각국의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패스 제도, 학교방역 사례 등 코로나19 대응 정보들을 수시로 수집·분석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다양한 해외사례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었다. 2022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에는 각국의 변화된 방역 정책 동향을 파악해 새 학기 등교 지침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G20 교육장관 회의를 통한 협력과제 제시 및 공동선언문 채택

우리나라는 G20 국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교육 중단,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0년 6월 27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0년 G20 특별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해 중단 없는 교육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과 온라인 개학 및 등교수업 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같은 해 9월 5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0년 G20 교육장관회의'의 경우 '미래 위기 대응 및 교육의 지속성 보장', '유아교육의 접근성 향상', '교육국제화 증진'이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와 공동선언문 채택이 이루어졌다.

| G20 특별 교육장관 화상회의



2021년 6월 22일에는 '2021년 G20 교육장관 회의'가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회의에 비대면으로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및 학교 일상 회복 경험과 코로나 이후의 미래교육 전환 노력을 공유하였다. 또한, 코로나19가 교육에 미친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를 제안하였다.

|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요약본



[교육회복]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등교일수가 평년 대비 50%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다양한 교육결손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육결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일상의 복원을 넘어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교육회복위원회를 통해 대학·대학생의 회복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 29일 수립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코로나19 영향 극복에 초점을 두었다. 학습손실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 개인의 생애는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진단에서였다. 따라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즉시 시행 가능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 교육회복의 원칙

적시성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부터 적기 지원
종합성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종합적 회복 지원
책무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교육회복에 총력

정부는 교육회복을 위해 '교육결손 회복', '맞춤형 지원', '교육여건 개선'의 3대 영역을 제시하고 총 52개 단위과제를 추진하였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8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회복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였다.

|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주요 과제

교육결손 회복			
종합진단	결손영역	맞춤지원	
학습진단 심리·정서 진단 건강진단	학습	<div>학습 보충</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보충 방과후학교 대학생 튜터링 학습 컨설팅 	<div>기초학력</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수업 두드림학교 학습종합 클리닉센터
	심리·정서 사회성	<div>심리정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상담·교육 - 위(Wee)센터 치료비 지원 방문의료서비스 	<div>사회성</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기관 연계 상담 도래활동 교외체험학습
	신체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체력교실 내실화 건강 UP+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신체건강 교육자료 제공

맞춤형 지원		교육여건 개선	
유아	상담·발달지원, 신체건강회복	과밀학급	28명 이상 과밀학급 적극적해소
직업계고	취업역량 제고, 사회진출 지원	교원회복	심리·정서 회복, 업무 효율화 등
취약계층	다문화·탈북·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미래교육	미래형 수업혁신, 미래교육 인프라

교육회복 지원위원회 운영

2021년 9월부터 교육회복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부총리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교육청·대학·지자체 관계자와 교원, 학부모, 지원 영역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공동 발표



민관합동 교육회복지원위원회



맞춤형 교육결손 해소 지원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회복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학생별 교육결손 정도를 교사의 관찰이나 상담, 진단도구 등을 통해 진단하였다. 진단 이후에는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또는 교사대 예비교사 튜터링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학생에게는 1:1 학습컨설팅을 제공하였다. 학습보충은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해 효과성을 높이고, 수강료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아, 직업계고 학생,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마련하여 더욱 세밀하게 지원하였다.

기초학력 지원체계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특히,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위해 전문인력이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학교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외부상담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하였다.

대학생 교육회복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대학생 학습결손 회복 및 대학 방역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코로나19 이전으로의 복귀를 넘어 미래 고등교육의 도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8월 '대학 교육회복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학 교육회복위원회 개요

목적	- 대학생 학습결손 회복, 대학 방역 관련 행·재정적 지원 필요사항 논의 및 현장 소통 - 단순히 코로나19 이전으로의 복귀를 넘어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에 필요한 사항을 현장과 논의
구성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대학·전문대학 총장 포함 총 11명

대학 교육회복위원회는 2022년 4월까지 총 5차례 개최되었으며, 대학의 대면활동 확대 등 일상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2022년 새 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방역 지원 등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하였다.

대학 교육회복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2차 회의 ('21.10.6)	- 대학의 일상회복 준비상황 점검 - 안전한 대학 대면활동 확대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관련 현장의견 수렴
3차 회의 ('21.11.4)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이후 현장 애로사항 등 청취 - 대학입시 진행에 따른 방역관리 계획 상호 공유
4·5차 회의 ('22.2.4, '22.4.5)	- 2022학년도 1학기 학사 및 방역 대응상황 점검, 지원 필요사항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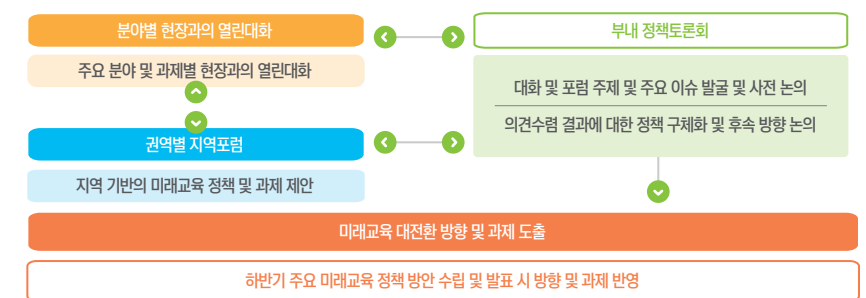
[미래교육]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얻은 성과들을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하여 교육부는 코로나 이후의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교육부는 교육현장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시안)」를 발표하면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미래교육 혁신 추진체계로 교육부에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을 출범하고 미래교육을 교육현장에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추진

코로나19 위기는 한편으로 교육 현장의 혁신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인구구조 변화, 사회 불평등 문제,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 등 교육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향후 미래교육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가 추진되었다. '분야별 현장과의 열린 대화', '권역별 지역포럼', '교육부 내부 토론회' 등 다각적인 소통을 추진하면서 미래교육의 방향과 이를 위한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추진 체계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시안) 마련

교육부는 2020년 10월 5일 미래교육위원회, 원격교육 정책자문단,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등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한 소통과 대화를 거친 결과를 종합하여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20.8.11),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20.9.9),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20.9.23) 등 현장의 요구에 맞춰 분야별로 선제 발표했던 정책들을 포함하여,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체계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분야	추진목표	10대 정책과제(안)
유초중등 교육	국가의 책무성, 현장의 자율성 강화	1.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2.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3.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4.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고등·평생교육	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	5.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 성장 지원 6.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7.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8.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기반 구축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9.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10.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 출범

교육부는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총괄 대응하고 미래 대비 교육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을 2021년 6월 출범하였다. 추진단은 미래교육으로의 혁신을 준비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로서 미래교육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미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교육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미래교육 체제 전환 노력

교육부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맞춤형 교수학습을 위한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교육분야 인공지능기술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과 기준안 마련 등이 있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은 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적합한 디지털 교육공간으로 전환해나가는 사업이다. 정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조 5천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총 2,835동의 노후 학교시설이 미래학교로 거듭나게 된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비전과 핵심 요소



| K-에듀 통합 플랫폼

‘K-에듀 통합 플랫폼’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서 개발한 다양한 에듀테크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아 사용자에게 다양한 교수·학습 서비스와 맞춤형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2021년 6월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다.

| 인공지능교육

교육에 인공지능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기에 앞서, 현장 수용성과 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2022년 1월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시안)」을 세계 최초로 마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인공지능교육 관련 협의체 운영 현황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실무협의회	- 인공지능 관계부처 실무자, 민간 전문가 등 참여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100인 포럼	- 학생, 학부모, 교원, 시도교육청, 연구자, 기업인 등 참여

